# "불자 증가 돌파구…현대화·사회참여"

## 김은영 연구교수, 동아시아 4개 대학 학술대회서

**30년간 韓인구 조사 추이 분석**
**불교 인구 감소세 가장 뚜렷해**
**세속화·신도충성도 결여 원인**
**높은신뢰도 강점…현대화 필요**
**동아시아 불교연구방법 논의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 30년 동안 이뤄진 한국 종교 인구조사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고 한국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제시한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김은영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단 연구교수는 3월 14일 언택트로 진행된 '제4회 동아시아 4개대학 불교학 국제학술대회'에서 '종교인구통계를 통해 본 최근 30년: 한국 종교의 흐름과 불교'를 통해 한국불교가 현대화를 통해 젊은 세대에 맞는 니즈(needs)를 찾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교수는 통계청이 1985년부터 10년마다 진행하는 '인구 및 주택인구조사'를 분석했다. 해당 조사에는 종교에 대한 항목이 조사되는데 1985, 1995, 2005, 2015년 총 4차례 조사됐다.

전수조사 방식에서 샘플조사로 변경된 지난 2015년 조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지만, 한국불교 인구가 감소세에 접어든 것은 확실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김 연구교수는 분석했다. 불교인구 감소에 대한 원인으로 김 연구교수는 일부 승려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자들에 대한 욕구 파악 미흡, 정체성 확립 실패, 세속화를 꼽으면서도 "종교의 사회적 지위는 신자의 수가 아니라 종교를 필요로 하는 감정을 얼마나 잘 읽고 대응하는 지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 연구교수에 따르면 불교는 문화적 힘을 가진 반면 조직 종교로서 약점을 가진다. 다른 종교에 비해 신도의 충성도가 낮아 종교적 정체성도 결여돼 있다는 분석이다. 연령 비율도 불안하다. 실제, 2005년~2015년 어린이, 청소년, 중년층에서 불교 인구는 감소했지만, 노인층은 증가했다.

김 연구교수는 "불교는 한국인의 삶에서 관습이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관습적 불교의 영향은 현재의 노인에 해당되며, 완전히 다른 사회문화 환경에서 자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상대적으로 약하게 적용된다. 수십 년 후 현재의 노인 인구가 사라지면 불교는 더 이상 주요 종교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교수는 불교의 현대화와 사회참여를 현재 상황의 돌파구라고 봤다. 그는 불교의 현대화를 통해 젊은 세대를 불교로 유입시키고, 불교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중년 여성을 존중할 것을 주문했다.

김 연구교수는 "무엇보다 미래 한국불교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사회참여"라면서 "전통에 기초한 불교적 가르침을 현대인의 요구에 맞게 적용시킬 때 새로운 종교적 사명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 동경대가 주관한 이날 학술대회는 '연구 방법으로써의 동아시아'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동국대와 북경대, 대만대가 참여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연구 방법으로써의 동아시아: 서양 미술사학자 시각으로 본 에도시대 하이쿠 문학해석(시모다 마사히로, 동경대) △동아시아 불교 연구 방법으로써 변증론: 조선시대를 중심으로(김성은, 동국대) △마음챙김 수행과 현재 인식: 아시아와 그 너머(차이 야오밍, 국립대만대) △〈유마경〉의 가르침으로서의 음식에 대한 해석학: 움직이는 축제(자오 유, 북경대) △'아비달마구사론'의 일본 수용: 현대 불교 연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다이고 이시키, 동경대) △현대 대만 불교의 승가 양성 교육(매튜 오스본, 옥스퍼드대) 등이 발표됐다.

찰스 뮐러 무사시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선 30여 명 불교학자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으며, 향후 4개 대학의 불교학 연구와 교류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종욱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은 "방법론으로써의 동아시아 연구의 다양성과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오늘의 발표들이 현재의 불교학을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동아시아 4개 대학 불교학 국제학술대회의 2라운드 개최는 대학원생 교류를 중심으로 구상하기로 했다. 추후 동국대의 주관으로 일정 및 방법을 상호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구미 출토 '국보 금동불' 살피다

## 국립대구博 '구미 선산 금동불 조사연구' 발간

구미 선산에서 출토된 국보 금동불 보살상을 정밀 연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국립대구박물관(관장 함순섭)은 국보 제182호 구미 선산 금동여래입상과 국보 제183호, 국보 제184호 금동관음보살입상을 연구한 〈구미 선산 금동불 조사연구〉를 발간했다.

3점의 국보 금동불보살상은 지난 1976년 3월 경북 선산군 고아면(현재 구미시 고아읍)에서 함께 발견됐다. 조사 결과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같은 해 4월에 국보로 지정됐다. 이후 여러 전시에 출품되며 우리나라 고대 불교 조각을 대표하는 불상으로 알려졌지만, 최초 보고 이후로 심층적인 연구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출토 이후 첫 정밀조사가 진행된 국보 금동불 3점. 사진 왼쪽부터 국보 제182호 구미 선산 금동여래입상, 국보 제183호 금동관음보살입상, 국보 제184호 금동관음보살입상.

국립대구박물관은 보존과학 장비를 활용해 금동불 3점의 겉과 속을 다각도로 살펴봤다. 다양한 장비를 활용한 비파괴조사도 시행하고 재질, 제작기법 등을 검토했다.

보고서는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 '금동불의 과학적 조사'에서는 각 불상의 비파괴조사 결과를 수록했다. 3차원 정밀촬영을 실시해 불상 구조를 실측도면으로 작성하고 정확한 구성과 계측치를 처음으로 제작했다.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의 협조를 얻어 문화재 비파괴조사 방법인 전산화 단층촬영(CT)과 X-선 형광분석(XRF)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제작기법 연구에 필요한 내부 구조를 확인하고 구성성분도 밝혔다.

2부 '금동불에 대한 고찰'에서는 국립박물관 불교 미술 전문가들이 고대 불교 조각사에서 이 불상들이 갖는 의의를 다뤘다. 금동여래입상은 허형욱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금동관음보살입상 2점은 권강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과 김지호 국립부여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담당했다.

한편, 보고서에 수록된 금동불 3점은 오는 6월 19일까지 전시되는 국립대구박물관 특별전 '빛의 과학, 문화재의 비밀을 밝히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성민 기자

# 전자불전硏 전등사 근대불교 사진 디지털화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소장 진명, 이하 전자불전연구소)가 성북구 전등사(주지 동명)가 소장한 근현대 불교사진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전자불전연구소는 3월 18일 서울 성북구 전등사와 상호업무협약을 맺고 전등사 주지이자 전등선림 회주 동명 스님이 소장한 근현대 불교문화 관련 기록사진의 디지털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업무 협약에 따라 전등사는 근현대 호남의 대표 선사였던 해안 선사(海眼, 1901~1974)의 인화사진 자료와 사찰 소장 근대불교문화관련 사진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사진자료는 1961년 해안 선사가 대중들을 위해 보인 생전 장례식의 전체 사진과 대중선(大衆禪)을 주창한 해안 선사의 법문 사진자료를 비롯해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1960~70년대 능가산 내소사와 지장암의 불교행사 관련 사진들이다.

신성민 기자

# '개경게' 찬자는 여황제 '측천무후'

**로담 스님, 염불문 망라한**
**'염불하지 않는 이…' 발간**
**고승·문인·황제 등 읊은**
**염불문 180편 모아 편역해**




'무상심심미묘법(無上甚深微妙法)/ 백천만겁난조우(百千萬劫難遭遇)/ 아금문견득수지(我今聞見得受指)/ 원해여래진실의(願解如來眞實意)'

신실한 불자라면 누구나 외우는 '개경게(開經偈)'다. 하지만 이 '개경게'를 지은 이가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 '측천무후(則天武后)'임을 아는 불자는 많지 않다.

측천무후는 후주(後周)를 건국한 여걸이었지만, 자신의 권력을 위해 딸과 두 아들을 살해한 비정한 인물이었다. 후주를 통치하는 동안은 뛰어난 정치력으로 태평성대를 이뤘다.

탁월한 정치가였지만, 비정한 어머니이기도 했던 측천무후는 자신의 악업을 두려워했었는지 독실한 불자이기도 했다. 측천무후는 우텐국 사문 실차난타가 80권의 〈화엄경〉을 번역해 자신에게 가장 먼저 바치자 환희심이 나서 지금 우리가 독송하는 '개경게'를 지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화엄경〉이 "위없이 깊고 미묘한 법이며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법"이라고 '개경게'라는 이름의 게송을 통해 찬탄한 것이다.

불자들이 독송하는 게·송·찬·술·시 등의 염불문을 망라한 〈염불하지 않는 이 누구인가〉가 발간됐다. 승려 시인으로 잘 알려진 로담 스님이 집역(集譯)한 〈염불하지 않는 이 누구인가〉에는 부처, 보살, 조사, 선사, 황제, 시인 등 100여 명의 다양한 인물들이 읊은 180여 편의 글들이 수록돼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염불문의 찬자(撰者)와 출처가 표기돼 있다는 것이다. 로담 스님은 〈화엄경〉〈금강경〉 등 경전과 〈선문염송〉〈조당집〉〈종경록〉 등 선어록·찬집 50여 종을 꼼꼼히 살폈다. 스님의 이런 노력으로 독자들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읊었을 염불문이 누구에 의해 지어졌고, 어디에 수록됐는지를 책을 통해 알 수 있게 됐다.

실제 잘 알려진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변함없는 부처님 마음(面上無嗔供養具 口裡無嗔吐妙香 心裡無嗔是眞寶 無垢無染是眞常)'의 제목이 '산옹지시(山翁指示)'이고, 무착문희(無着文喜) 선사의 게송이다.

김은령 시인은 책의 발문에서 "희유한 180여 편의 시를 읽을 수 있었으며, 그 시의 주인과 출처를 알게 됐다"면서 "시의 밭을 경작하는 수행자가 시인의 마음으로, 시인의 눈으로 80여 종에 이르는 자료의 출처를 찾아 엮어 낸 '장엄염불의 교본'"이라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 불교평론 무료 전자책 서비스 시작

불교계 대표 학술 계간지 〈불교평론〉이 전자책 무료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불교평론〉은 "2021년 봄호인 통권 85호를 발행하면서 그동안 발행했던 잡지를 모두 전자책으로 제작해 3월 23일부터 무료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불교평론〉은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했다. 또한 발행됐던 잡지 전권을 고해상도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광학식 문자 판독) 스캔작업을 통해 전자책으로 변환하고, 이를 무료로 열람·다운로드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불교평론〉은 "이번 85호 발행과 함께 전자책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기능을 보강하고 디자인 개편작업까지 완료했다"면서 "전자책 제작을 무료로 개방한 것은 그동안 불교학 연구자들이 학술논문 등을 집필할 때 구체적 인용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전자책 발행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된 '불교평론' 홈페이지 메인화면.

한편, 〈불교평론〉은 지난 1999년 겨울 불교학의 대중화와 불교학진흥을 위해 창간한 대표적 불교교양 학술지로 설악산 신흥사가 22년째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G미래&힐링 융복합 최고경영자 과정 〈제4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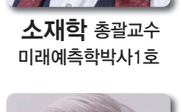
〈미래학 + 동양미래예측학 + 자연건강(Healing) + 인문·문화〉
대한민국 리더의 미래와 건강,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특화AMP 과정

| | | | | |
|---|---|---|---|---|
| OT특강 | ＊늙지 않는 비법 호르몬 관리, 명의 김세철 원장, 4월 20일, 희망자 사전 신청 후 특강 수업 참관 가능 | | | |
| 수업 | ＊매주 화(火)18:00~21:00 ＊동국대 학명세미나실 ＊입학식: 5월 11일<br>0교시 18:00 ~ 18:30 석식 및 다과, 원우 특활<br>1교시 18:30 ~ 20:10 동서양 미래학, 자연 건강, 인문 문화 특강<br>2교시 20:20 ~ 21:00 자연건강, 힐링타임, 1주일의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 | | | |
| | 미래학 | 동양미래예측학 | 자연건강 | 인문·문화 |
| 주제 | 미래경영과 4차 산업 혁명 | 때를 찾는 지혜 동양미래예측학 | Wellbeing Welldying | 인문학 |
| | 미래변화와 생존, 혁신전략 | 과학화된 역학(관상 주역) | 음식궁합 먹거리 | 법률 |
| | 미래전략 손에 잡히는 미래 | 부동산과 풍수 | 체질요법 힐링 명상 | 세무 |
| 자격 | 대기업 및 공기업 임원급 이상 경영자, 중소기업 대표, 금융계 언론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 고위인사,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자 | | | |

＊과정 원장 소재학 교수가 최초로 창시하고 개발한, 개인의 성공과 실패 90% 이상 규칙적인 예측 가능한 동양미래예측학 프로그램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통해 모든 원우들의 개인별 미래 흐름 분석 및 맞춤형 관리 (성공할 때, 물러날 때, 투자할 때, 건강 약해지는 시기 등)

＊특강 교수 : 태초 먹거리 학교 이계호 교수, 김중태 IT문화원장,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 사기피해예방 임채원 부장검사, 엄창섭 고려의대 해부학교수, 최낙원 대한통합암학회 이사장, 부동산 투자 전문가 박관식 대표, 박경식 미래전략정책연구원 원장 외

＊홍보대사 : 원우 가수 장미화 회장, 코미디 협회 엄용수 회장, 뚝딱이 아빠 김종석 박사 외



소재학 총괄교수
미래예측학박사1호

원장 겸 총괄교수
•동양미래학자
•명리학자, 풍수지리학자
•동서양미래학 융복합학자
•국제뇌교육대학원 석좌교수
•캐롤라인대학교 부총장
•KOFS 한국동양미래학회 회장
•동국대 GFCA최고위과정 원장



이상희 전 장관
전 과기부장관, 국회의원



김홍신 교수
소설가, 전 국회의원



박영숙 대표
유엔미래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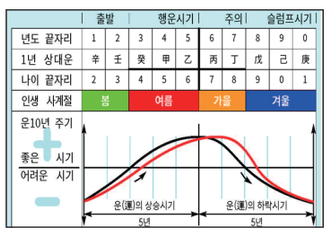
김세철 교수
명지병원 의료원장

현대 사주명리학 공개특강
동국대 G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12기〉 개강특강
3월 31일(水), 4월 7일(水) 18:30, 공개특강 사전 신청순 30명

왕초보도 제대로 된 사주명리학, 원리위주 가장 쉽게 공부하고 마스터하는 과정

평생 공부해도 답 안 나오는 사주학, 원리 위주 재미있게 OK!
성공 실패 시기, 창업 투자 시기, 때를 찾는 법 제대로 배우는 과정, 검증 가능한 제대로 된 작명법(성명학) 마스터
과학화된 역학, 논리로푸는 사주학, 동양미래예측학 마스터 교강사 및 명리진로적성상담자 자격증 과정 겸비

＊수업: 매주 水 18:30~21:00 초급, 중급, 고급 과정별 수강,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프로그램 활용 학습용이
＊예습 및 복습강의 영상제공
＊수료후 마스터까지 무료반복수강 가능




명당 찾는법 풍수지리 공개특강
동국대 GFCA 풍수지리 최고위과정 〈9기〉 개강특강
4월 12일(月), 4월 19일(月) 18:30, 공개특강 사전 신청순 30명

기(氣) 좋은 터 찾는 법, 원리 위주 강의,
왕초보도 1년에 제대로 된 맥을 잡는 과정

풍수지리, 정확히 알고 활용하면 인생을 보다 성공적이며 건강하게 해주는 자연과학. 교강사 및 풍수지리 지도사자격증 과정 겸비,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아닌, 원리 위주 재미있는 공부, 국내외 실전 기 풍수지리 현장 답사

＊수업: 매주 月 18:30~21:00 ＊경제적인 등록금
＊강의 영상 제공 유튜브: 소재학교수의 때를 찾는 지혜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최고위과정



★소재학 총괄교수 동양미래예측학, 풍수지리 특별상담 진행★

동국대 미래융합대학 CEO 최고경영자과정 사무국 ☎ 02-585-0079 / 사주명리 풍수지리 전문가 최고위 사무국 ☎ 02-3443-4984, 010-8335-8001